조선시대(朝鮮時代) 과거제도(科擧制度)

- **문관과거**(文官科擧)
  - **생진과**(生進科)
    - 생원과(生員科)…초시(初試)=한성(漢城)과 각도에서 1천명 선발
      사서오경(四書五經)으로 경서(經書)시험
    - 진사과(進士科)…복시(覆試)=한성(漢城)의 초시(初試) 합격자 중 1백명 선발
      시(詩)·부(賦)·표(表)·책(策)
  - **문과**(文科)(대과大科)
    - 초시(初試)…한성(漢城)과 각도에서 1백명 선발
      - 초장(初場)…사서오경(四書五經)
      - 중장(中場)…시부표책(詩賦表策)
      - 종장(終場)…대책시험(對策試驗)
    - 복시(覆試)…한성(漢城)에서 초시합격자중 33명 선발
    - 전시(殿試)…복시합격자 33명의 등급을 결정함
      - 갑과(甲科)…3명
      - 을과(乙科)…7명
      - 병과(丙科)…23명
- **무관과거**(武官科擧)
  - 초시(初試)…한성(漢城) 및 각도병영(各道兵營)에서 2백명 선발
  - 복시(覆試)…한성(漢城)에서 28명 선발
  - 전시(殿試)…복시합격자(覆試合格者) 28명의 등급을 결정함
- **기술과거**(技術科擧)
  - 역과(譯科)…한어(漢語) 28명 몽고어(蒙古語) 여진어(女眞語) 倭語(왜어) 각 4명
  - 의과(醫科)…초시(初試) 18명 복시(覆試) 9명
  - 음양과(陰陽科)…초시(初試) 14명 복시(覆試) 7명
  - 율과(律科)…초시(初試) 18명 복시(覆試) 9명
- **승려과거**(僧侶科擧)
  - 선종시(禪宗試)…전등(傳燈) 염송(拈頌)으로 시험
  - 교종시(敎宗試)…화엄경(華嚴經) 십지론(十地論)으로 시험 각 30명

과거시험(科擧試驗)의 종류(種類)와 방목(榜目)

감시(監試):국자감시(國子監試)의 준말로서 조선시대 때 생원(生員)과 진사(進士)를 뽑던 과거.

갑과(甲科):조선시대 과거의 복시(覆試) 합격자에게 전시(殿試)를 보여 성적순에 따라 갑·을·병으로 분류하던 중의 첫째 등급을 말하며 3명을 뽑았다. 첫째의 장원랑(壯元郞), 둘째의 방안랑(榜眼郞), 셋째의 탐화랑(探花郞) 위 세 사람이 갑과(甲科)에 속한다.

경시(京試):조선시대 3년마다 한성(漢城)에서 보이던 소과(小科)의 초시(初試).

과거(科擧):왕조시대 때 문·무관(文武官)을 뽑을 때에 보던 시험(試驗).

관시(館試):조선시대 성균관(成均館) 유생(儒生)들만이 볼 수 있던 문과(文科)의 초시.

교종시(敎宗試):조선시대 세종(世宗) 이후(以後), 교종(敎宗) 승려(僧侶)에게 화엄경(華嚴經), 십지론(十地論)으로 시험(試驗) 보이던 과거(科擧). 이 시험(試驗)에서의 급제자(及第者)를 교종(敎宗) 대선이라 하였다.

국조방목(國朝榜目)=문과방목(文科榜目):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명부.

매방초시(每榜初試):과거(科擧)를 볼 때마다 초시(初試)에는 언제나 합격(合格)되나 복시(覆試)에는 낙제된 사람.

무과(武科):조선시대 무관을 뽑던 과거로서 시험은 무예와 병서(兵書)로 3년마다 실시되었다. 초시(初試)·복시(覆試)·전시(殿試)의 3단계였음.

문과(文科):조선시대 문관(文官)을 뽑아 쓰던 과거로서 시험은 3년마다 실시 되었다. 초시(初試)·복시(覆試)·전시(殿試)의 3단계로 나뉘었음.

별시(別試):조선시대 정규 과거시험 외에 임시로 시행된 과거시험의 하나.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와 인재등용이 필요할 때에 실시되었다. 세조 2년(1456)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, 문과와 무과만 열고 생원진사시(生員進士試)와 잡과(雜科)는 열지 않았다.

병과(丙科):조선시대 과거의 복시(覆試) 합격자에게 전시(殿試)를 보여 성적순에 따라 갑·을·병으로 분류하던 세 등급 가운데 셋째 등급으로 23명을 뽑았다.

복시(覆試):과거시험의 한 단계로 초시(初試) 합격자가 보는 시험이다. 과거의 종류에 따라 최종시험이 되기도 하고 전시(殿試)의 전 단계 시험이 되기도 한다.

사마방목(司馬榜目):조선시대 새로 합격한 진사와 생원의 성명·연령·주소·본적 및 사조(四祖)를 기록한 명부를 일컫는다.

생원과(生員科):조선시대 사마시(司馬試)의 하나이며 주로 유생(儒生)에게 경서(經書)를 시험(試驗)보여 생원(生員)을 뽑으며, 초시(初試)와 복시(覆試)가 있었다.

선종시(禪宗試):조선시대 승과(僧科)의 하나로 선종(禪宗) 출신(出身)의 승려(僧侶)들에게 전등(傳燈)·염송(拈頌) 등을 시험(試驗)보여 30명을 뽑아 선종(禪宗) 대선(大選)의 법계(法階)를 주었음.

식년시(式年試):조선시대 과거시험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. 《속대전》 이전에는 대비과(大比科)라 하던 것을 《속대전》 이후부터 자(子)·묘(卯)·오(午)·유(酉)의 간지(干支)가 들어 있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과거를 시행함에 따라 식년시가 되었다.

알성시(謁聖試):조선시대 실시된 비정규 문과·무과시험으로 알성과(謁聖科)라고도 한다. 국왕이 문묘에 가서 제례를 올릴 때 성균관 유생에게 시험을 보여 성적이 우수한 몇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서, 태종 14년(1414)에 처음 실시하였다. 알성시는 문과·무과만 치렀다.

양장초시(兩場初試):조선시대 과거에서 초시의 초장(初場)과 종장(終場)에 합격(合格)한 사람.

역과(譯科):조선시대 잡과(雜科)의 하나로 중국어·몽고어·일본어·여진어에 능통한 사람

을 역관(譯官)으로 뽑아 쓰기 위하여 보이던 과거.

역과방목(譯科榜目):조선시대 통역관 선발시험인 역과 합격자의 명단을 시취년(試取年)별로 모아놓은 책

율과(律科):조선시대 형률(刑律)에 능통한 사람을 등용하던 잡과(雜科)의 한 가지

을과(乙科):조선시대 과거의 복시(覆試) 합격자에게 예조(禮曹)에서 전시(殿試)를 보여 성적순에 따라 갑·을·병으로 분류하던 세 등급 가운데 둘째 등급으로 7명을 뽑았다.

음양과(陰陽科):조선시대 잡과(雜科)의 하나로 천문학·지리학·명과학(命課學)에 밝은 사람을 뽑던 과거.

의과(醫科):조선시대 잡과(雜科)의 하나로 의학(醫學)에 밝은 사람을 시취(試取)하던 과거(科擧)로 초시(初試), 복시(覆試)가 있었다.

의과방목(醫科榜目):조선시대 의과급제생의 명단을 수록한 책으로서 2권 2책으로 구성된 활자본이며 1891년(고종 28)에 간행했다. 1498년(연산군 4)부터 1891년까지 158회의 식년의과(式年醫科)와 증광의과(增廣醫科) 급제자를 수록했다.

잡과(雜科):고려·조선시대의 과거제도의 한 가지로서 역과(譯科)·의과(醫科)·음양과(陰陽科)·율과(律科) 따위를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.

전시(殿試):조선시대 복시(覆試)에 선발된 사람에게 임금이 친히 보이던 과거. 즉 초시·복시에 이은 문무과의 최종시험으로서 결과에 따라 갑, 을, 병과로 등급을 정하였음.

정시(庭試):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안에서 보이던 과거.

중시(重試):조선시대 과거제도의 하나로서 10년에 1번씩 당하관 이하 문관·무관에게 보이던 정기시험이다. 이미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거듭 보이던 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면 성적에 따라 관직의 품계를 특진시켜 당상관까지 올려 주었다.

증광시(增廣試):조선시대 과거시험의 한 종류로서 즉위경(卽位慶)이나 30년 등극경(登極慶)과 같은 큰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작은 경사가 여러 개 겹쳤을 때 임시로 실시한 과거. 소과(小科)·문과(文科)·무과(武科)·잡과(雜科)가 있었다. 태종원년(1401)에 처음 실시.

진사과(進士科)=제술과(製述科):조선시대 과거(科擧)의 하나로 소과초시(小科初試)의 한 분과(分科)로 한성(漢城)과 지방(地方)에서 실시(實施)하였음.

초시(初試):과거(科擧)의 맨 처음 시험(試驗)으로 조선시대 복시(覆試)에 응할 자가 식년(式年)의 전해에 경향(京鄕)에서 치르던 과거를 말한다. 또는 그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칭한다.

친시(親試):과거(科擧)를 보일 때 임금이 친히 시험을 보이던 일.

한성시(漢城試):조선시대 한성부(漢城府)에서 실시(實施)하던 문과(文科)와 생원(生員) 진사과(進士科)의 초시.

향시(鄕試):지방에서 실시(實施)하던 과거(科擧)의 초시. 여기에 합격(合格)해야 한성(漢城)에서 복시를 치를 수 있었음.